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02. 4. 11.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2년 4월 4일 일본국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가 오히려 이전보다 퇴보된 역사인식하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998년 한·일 양국의 정상간에 채택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역사인식이 역사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한·일간의 관계발전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증거 및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명백히 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이 인접 국가들과의 우호관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잘못된 기술을 시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2002년 3월 설치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일본국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국가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일본국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제안이유

2002년 4월 4일 일본국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국의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의 일부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들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인접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특히 일부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국의 영토로 기술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개악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대변하여 일본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재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밝히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임.